

# 세계 FDI 동향 및 전망

(2021. 8.)

## 목 차

I. 개요

II. 선진국 FDI 유입 동향 및 전망

III. 개도국 FDI 유입 동향 및 전망

IV. 체제전환국 등 FDI 유입 동향 및 전망

V. 외국인 투자정책 동향

VI. 지속가능 회복과 발전을 위한 투자

해 외 경 제 연 구 소

지 식 경 제 팀

※ 본 보고서는 UNCTAD(유엔 무역개발협회의)의 World Investment Report 2021(2021년 6월)을 발췌·요약

## I. 개요

### 1 세계 FDI 유입 동향

□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세계 해외직접투자(이하 “FDI”)는 전년 (1.5조불) 대비 35% 감소한 1조불 수준으로 급감

- 각국의 봉쇄조치(Lockdown)로 인한 다국적기업의 기존 투자 지연 및 신규 투자추진 보류가 주원인

#### 세계 FDI 유입 추이

(억불)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투 자 액	20,323	20,652	16,473	14,367	15,302	9,989

□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공급 충격(Supply-demand Side Shock)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끼쳐, 다국적기업의 투자활동 위축을 초래

- 불확실성으로 인한 신규 지분투자 보류, 위기대응을 위한 대부투자 회수, 영업악화로 인한 이익 재투자 감소\*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

\* 2020년 신규 지분투자 증감률  $\Delta 55\%$ , 대부투자 음(-)으로 전환, 이익 재투자 증감률  $\Delta 7\%$ ,

- FDI는 세계 GDP 및 교역량\*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

\* 2020년 세계 GDP 증감률  $\Delta 4.4\%$ , 교역량 증감률  $\Delta 5.3\%$

□ 세계 FDI는 대폭 축소되었으나 그 양상은 지역별로 상이

- **[선진국 · 체제전환국]** 각각 전년 대비 58% 감소

- 세계 FDI 감소분 0.5조불 중 1/3이 유럽계 다국적기업의 투자금 회수 및 기업재편에 기인

- **[개도국]** 아시아 지역 앞 FDI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8% 감소하였으며, 세계 FDI 중 비중은 전년도 1/2에서 2/3로 확대
  - 중국 다국적기업의 홍콩 앞 투자 증가(전년 대비 460억불 증가) 등이 개도국 FDI 감소폭을 제한

### 지역별 FDI 유입 추이

(억불)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선진국	12,678	13,445	8,943	7,076	7,490	3,122
유럽	7,129	7,664	5,026	3,443	3,626	725
북미	5,115	4,955	3,181	2,616	3,092	1,801
기타	434	827	736	1,017	772	596
개도국	7,304	6,539	7,025	6,925	7,234	6,626
아시아	5,143	4,708	5,052	4,965	5,155	5,353
중남미	1,566	1,359	1,563	1,501	1,605	876
아프리카	579	462	402	454	471	398
기타	16	10	8	5	3	△1
체제전환국	341	668	505	366	578	242
전 세계	20,323	20,652	16,473	14,367	15,302	9,989

### < UNCTAD의 국가 분류 >

- **선진국**(Developed Economies): EU 27개국, 비EU유럽 4개국(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미국, 캐나다, 호주, 버뮤다,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로 총 38개국
- **개도국**(Developing Economies): 선진국 및 체제전환국 이외의 국가\*로 146개국
  - \* 2021. 7. 2차 유엔 무역개발이사회에서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였으나, World Investment Report 2021은 2021. 6. 21차 발간되어 한국을 개도국으로 분류
- **체제전환국**(Transition Economies):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세르비아 등 17개국
- ※ **후진국**(Least Developed Economies):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콩고, 에티오피아, 세네갈, 토고, 잠비아 등 46개국
- ※ **내륙국**(Landlocked Developing Economies): 몽골, 네팔, 르완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32개국
  - \* 후진국·내륙국은 개도국 또는 체제전환국에 포함

**< 참고: 유형별 투자(FDI 포함) 동향 >**

- **개도국의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 및 PF 투자가 각각 44%, 53% 감소하였으며, 선진국의 동 투자(각각 16%, 28% 감소) 대비 크게 위축**
- 동 투자유형은 산업생산 능력 확충 및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을 전망하는 주요 지표임.

구 분	투자유형	투자액(십억불)		증감률 (%)	투자건수(개)		증감률 (%)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선진국	M & A	424	379	△11	5,802	5,225	△10
	그린필드	346	289	△16	10,331	8,376	△19
	P F	243	175	△28	543	587	8
개도국	M & A	82	84	2	1,201	907	△24
	그린필드	454	255	△44	7,240	4,233	△42
	P F	365	170	△53	516	443	△14
체 제 전환국	M & A	1	12	716	115	69	△40
	그린필드	46	20	△58	697	371	△47
	P F	26	21	△18	59	31	△47

## 2 세계 FDI 유입 전망

- **[2021년 전망]** 연중 반등을 시작하여 전년 대비 10~15% 증가
  - 2021년 경제성장 기대에도 불구하고, 백신 보급 불확실성, 변이 바이러스 확산, 경제활동 재개 지연 등으로 인해 세계 FDI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1.1~1.2조불 수준 예상

**< UNCTAD의 세계 FDI 전망 수정 >**

- 2020년 6월 UNCTAD는 FDI 감소세가 20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최근의 백신 보급, 저축 증가, 보복소비 확산 등으로 **세계 경제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기존 FDI 전망을 다소 긍정적으로 수정**
- FDI는 경기후행지표인 바,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기 위해 他경제지표 개선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FDI가 회복되는 양상은 지역별로 상이할 전망
  - [선진국] FDI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며, 풍부한 유동성 및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M&A·공공분야 위주 투자 증가 예상
  - [개도국] 아시아 지역은 최대 투자대상 지역으로서 FDI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남미·아프리카 지역은 취약한 경제구조로 인한 낮은 수준의 재정·금융정책 여력 등으로 인해 회복세가 미미할 전망
  - [체제전환국]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시 FDI 유입은 일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나, 러시아 경제제재 및 낮은 경제 성장 전망에 따라 지속적으로 침체될 전망

지역별 FDI 유입 증감률 추세 및 전망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전망)
선진국	△21	6	△58	15~20
유럽	△32	5	△80	15~20
북미	△18	18	△42	10~20
개도국	△1	4	△8	5~10
아시아	△2	4	4	5~10
중남미	△4	7	△45	△5~5
아프리카	13	4	△16	0~10
체제전환국	△28	58	△58	△10~0
전세계	△13	7	△35	10~15

- [2022년 전망]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경우, 1.4~1.5조불 수준까지 증가 전망
  - 신속한 경제회복, 투자심리 개선 및 제한적인 바이러스 재확산 가정시, 팬데믹 이전 수준인 최대 1.5조불로 회복 가능
- [장기 전망] 역대 최고인 2016년의 2조불 수준까지 회복은 불확실
  - 팬데믹 이후 기존 글로벌 공급망을 국내생산 또는 지역생산 체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는데 기인

## II. 선진국 FDI 유입 동향 및 전망

- **[2020년 동향]** 선진국 FDI는 전년 대비 58% 감소\*한 3,122억불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세계 FDI 감소분의 약 80%를 차지
  - \* 2008년 금융위기시 39% 감소
- 각국의 봉쇄조치, 연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글로벌 공급망 붕괴, 다국적기업의 이익 감소 등에 따른 투자 보류가 주요 감소 원인
- **[미국]** 아시아 다국적기업의 투자가 크게 감소(전년 대비 53% 감소)하는 등 FDI는 전년 대비 40% 감소한 1,563억불 기록
- **[독일]** M&A 투자 유입\*에도 불구하고, 기투자 기업의 대부투자 회수에 따라 FDI는 전년 대비 34% 감소한 357억불 시현
  - \* 독일 티센크루프社의 엘리베이터 사업부문 매각(187억불) 등
- **[이스라엘]** 전자산업 M&A 투자 유입\*이 증가하여, FDI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248억불 기록
  - \* 미국 Nvidia社의 이스라엘 멜라녹스社 인수(69억불) 등
- **[캐나다]** 광업 및 제조업 투자가 급감하여 FDI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인 238억불 시현
- **[이탈리아]** 동국 앞 기투자 기업의 대부투자 회수 및 투자 지분 대량 매각\* 등에 따라 FDI 유출 전환
  - \* 영국 통신기업 보다폰社의 이탈리아 SpA社 앞 부동산지분 매각(58억불) 등
- **[네덜란드]** IT 및 석유화학 기업의 청산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거액 투자 회수로 FDI 유출 1,153억불 기록

< 참고: 선진국 투자유형별(FDI 포함) 동향 >

- **[M&A]** 선진국 주요 투자유형인 M&A로 인한 투자유입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3,790억불로, 제약업 및 금융업 투자는 감소하였으나 **식음료, 유틸리티, IT 분야 투자는 증가\***함.  
\* 영국 유니레버社와 네덜란드 유니레버社의 합병(810억불)
- **[그린필드]**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 대비 16% 감소한 2,890억불로, 유가하락에 따라 화학설비, 정유설비 분야 투자가 감소한 반면, 언택트 트렌드에 맞추어 **IT, 통신 분야 투자는 증가\***  
\* 대만 TSMC社의 미국 반도체 공장 설비투자(120억불)
- **[PF]** 국제 PF 투자는 전년 대비 28% 감소한 1,750억불로, 각국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및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에** 힘입어 투자 금액은 감소하였으나 **투자건수는 전년 대비 8% 증가**

□ **[2021년 전망]** 양호한 거시경제 성장 전망\*,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 등에 힘입어 FDI는 전년 대비 **15~20% 증가**할 전망

\* 선진국의 GDP 증감률은 전년(△5%) 대비 5%로 반등 전망

○ 미국 등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라 **인프라 PF 투자가 증가**하고, 다국적기업이 흑자전환하면서 **이익 재투자도 증가** 예상

- 다만, 인플레이션 우려, 미·중 무역분쟁 지속, 법인세제 개편 움직임 등으로 인해 경기회복세 시현에 대한 불확실성 상존

○ 선진국 FDI 유입의 주요 동인인 **M&A 투자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화학, 자동차, IT 등 분야에서 활발**할 것으로 전망\*

\* 2021년 1~4월 중 선진국 M&A 투자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

### Ⅲ. 개도국 FDI 유입 동향 및 전망

#### 1 아시아 개도국

- **[2020년 동향]** FDI는 전년 대비 4% 증가한 5,353억불을 시현하였으며, 세계 지역 중 유일하게 FDI가 증가
  - 중국, 인도와 같은 대규모 경제의 FDI가 증가한데 기인하며, 관광업 및 제조업에 투자가 집중된 소규모 경제의 FDI는 감소
  - **[중국]** 조기방역 성공으로 2020년 2분기 이후 GDP성장률이 반등하였고, 투자환경 개선으로 첨단기술 산업 투자가 증가하여 FDI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1,493억불 시현
  - **[홍콩]** 2019년 민주화 시위로 억제되었던 투자활동이 2020년 중 재개되면서 중국계 다국적기업의 기업재편 관련 투자가 증가하는 등 FDI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1,192억불 시현
  - **[싱가포르]** 주요 투자산업인 금융, 도소매업, 제조업이 모두 위축되어 FDI는 전년 대비 21% 감소한 906억불을 기록하였으나, 아시아 투자자의 최대 투자대상국을 유지
  - **[인도]** IT\*, 의료, 인프라, 에너지 산업 투자가 활발하여 FDI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641억불 시현
    - \* 미국 페이스북社의 인도 지오플랫폼社 지분 인수(57억불) 등
  - **[인도네시아]** 양대 투자국인 일본과 싱가포르로부터의 제조업 등 투자가 감소하여 FDI는 전년 대비 22% 감소한 186억불 기록

- **[베트남]** 제조업 및 부동산업 투자는 감소했으나, 전력산업 투자가 증가하여 FDI는 전년 대비 2% 감소한 158억불 시현
  - **[한국]** 팬데믹 조기방역에 성공했지만 기투자 지분 회수, M&A 축소 등에 따라 FDI는 전년 대비 4% 감소한 92억불 기록
    - 전반적인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전기차, 바이오 분야 투자는 견조하게 유지
- **[2021년 전망]** 의료·디지털·IT 분야의 투자가 증가하여 他개도국 대비 높은 FDI 증가율(5~10%) 시현 전망
- 다만, 추가적인 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 각국 재정여력의 한계 등의 FDI 위축요인은 상존
  - **[중국]** 빠른 경기회복\*에 따라 산업생산, 시설투자, 교역량이 모두 증가하여, 아시아 지역의 FDI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
    - \* 2021년 1분기 GDP 증가율 18.3%
    - 특히, 첨단기술, 제조업, 서비스 산업 투자가 증가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정부 정책도 안정적으로 운용될 전망
  - **[홍콩]** 낮은 세율, 용이한 기업상장, 유연한 자본규제 등에 힘입어 아시아 금융허브 및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 기능 지속 전망
    - 다만,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불안 요소 상존으로 장기적인 FDI 변동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

- **[인도]** 2021년 4월 이후 2차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생산 차질, 투자 지연 등에 따라 FDI 감소 전망
  - 다만, 견고한 경제 펀더멘탈, 시장개척을 위한 투자유인, IT 산업의 높은 성장잠재력 등으로 장기적으로 FDI 증가 전망
- **[한국]** 2021년 1분기 FDI는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43억불을 기록하는 등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FDI 회복 전망

## 2 | 중남미

- **[2020년 동향]** FDI는 전년 대비 45% 감소한 876억불이 유입 되었으며, 개도국 지역 중 가장 급격한 감소폭 기록
  - 세계 최고의 코로나-19 사망률, 관광업 쇠퇴, 원자재가 하락이 주요 감소 요인이며, 2014년 이후 지속된 경기불황이 팬데믹으로 심화
- **[멕시코]** 원자재가 하락으로 광업 및 석유·가스시추업 앞 투자가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전년 대비 15% 감소한 291억불 시현
- **[브라질]** 중남미 최고의 코로나-19 사망률 등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한 최근 20년래 가장 낮은 수준의 248억불 기록
- **[칠레]** 중남미에서 가장 높은 백신접종률에 힘입어 FDI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33%를 기록하여 84억불 시현
- **[콜롬비아]** 대규모 소요사태 및 국가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인해, 석유시추업, 광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FDI가 감소하여 전년 대비 46% 감소한 77억불 시현

- **[아르헨티나]** 취약한 경제구조에 팬데믹의 충격으로, 2020년 5월 채무불이행(Default)을 선언하는 등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인해 FDI 유입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41억불 기록
- **[2021년 전망]** 2021년 FDI는 큰 변동없이 他개도국의 증가폭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까지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어려울 전망
  - 2021년 동 지역 예상 GDP 증가율(4.3%)은 신흥시장 및 개도국의 예상 GDP 증가율(6.7%)을 대폭 하회, 경제회복 지연 예상
  - 각국의 선거 등 정치적인 요인과 더불어, 중국의 경기 회복 및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에 따른 광물자원 수요 증가 여부도 동 지역 FDI 유입의 변수
  - 미국의 다국적기업이 전자산업 및 의료산업의 글로벌 공급망을 동 지역으로 다변화할 경우, 제조업 투자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될 전망
  - 반면, 석유·가스시추업은 세계 산업생산 회복 지연, 통신·교통 산업은 관광업 침체에 따라 투자 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
  - 한편, 친환경 산업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관련 니켈, 구리, 리튬 등의 광물수요가 증대
    - 동 광물 채굴에 대한 투자유인이 증가하여, 관련 투자가 다수 유입 중

- **[2020년 동향]** FDI는 전년 대비 16% 감소한 398억불 기록
  - 팬데믹으로 인한 25년만의 경기침체 및 이동제한으로 투자 활동 위축
    - \* 개도국 중 아프리카 투자 비중 변동: 2019년 6.3% → 2020년 5.9%
  - 원자재가 하락의 영향으로 **자원의존적(resource-dependent)** 경제 구조를 가진 동 지역 앞 FDI 위축
  
- **[2021년 전망]** FDI는 소폭 증가(0~10%)할 것으로 전망
  - 아프리카의 2021년 **GDP 증가율(3.6%)**은 세계 GDP 증가율(5.4%)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 \* 다만, 아프리카 교역량은 세계 교역량 증가율(8.0%)과 유사한 8.4% 증가 예상
  - 낮은 백신 보급률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동 지역 경제 회복 및 투자활동 재개의 위험요인
  - 다만, 향후 원자재 수요 증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신규 투자 확대,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협정(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greement)** 시행으로 동 지역에 대한 투자 확대 기대

<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 협정의 기대효과 >

- 2021년 1월 협정 시행 이후 아프리카 특별경제구역(African Special Economic Zones) 앞 **역내 국가로부터의 FDI 유입은 15%, 역외 국가로부터의 FDI 유입은 30% 증가** 예상
- 아프리카 주요 투자대상 산업은 **광업**에 국한되었으나, 협정 체결 이후에는 **농업, 경공업, 섬유, 전자** 등으로 확대 전망

## IV. 체제전환국 등 FDI 유입 동향 및 전망

### 1 체제전환국

- **[2020년 동향]** FDI는 전년 대비 58% 감소하여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인 242억불 기록
  - **[러시아]** 체제전환국 중 최대 FDI 유입국이나, OPEC+ 內 갈등으로 인한 석유산업 투자 축소로 FDI는 전년 대비 70% 급감한 97억불 기록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AI산업 등으로 투자 다변화를 추진해 왔으나, 팬데믹 이후 석유·가스시추업 의존도 심화
  - **[카자흐스탄]** 체제전환국 중 2위 FDI 유입국으로, 광업, 교통, 금융, 통신 분야 투자가 활발하여 FDI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39억불 시현
  
- **[2021년 전망]** FDI는 전년 대비 0~10% 감소 전망
  - 역내 FDI 유입의 가늠자인 그린필드 투자가 2020년 개도국 평균(△44%)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58%)한 바, FDI는 2022년 이후 회복 가능
    - 천연자원에 의존적인 투자 유입세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
  - 각국 정부는 양적 완화 및 정부지출 확대를 통해 거시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나, 매력적인 외국인 투자대상은 제한적

- **[2020년 동향]** FDI는 2017년 이후 하락세를 시현 중으로, 2020년의 경우 전년과 유사한 236억불 기록
  - **[캄보디아]** 후진국 중 최대 FDI 유입국으로, 팬데믹으로 인한 숙박업·의류업 타격에 따라 FDI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1%)한 36억불 시현
  - **[에티오피아]** 관광업, 글로벌 공급망 연관 산업의 위축으로 FDI는 전년 대비 6% 감소한 24억불 기록
  - **[모잠비크]** 대부투자 증가 및 대규모 LNG 프로젝트\* 추진으로 FDI는 전년 대비 6% 증가한 23억불 시현
    - \* 프랑스 Total社의 LNG 개발 프로젝트, 2021년 4월 안전 관련 이슈로 진행 중단
  - **[앙골라]** 기설치 석유시추설비의 운영기간 종료가 임박하여, 석유기업의 투자금 회수도 감소하면서 FDI 유출 규모 축소
- **[2021년 전망]** 부탄을 제외한 대다수 후진국들은 충분한 백신 접종에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FDI 감소세는 장기화 전망
  - 후진국은 제한된 방역물자, 취약한 의료장비, 백신보급 지연 등을 감안시 팬데믹 대처능력이 취약
  - 코로나-19 시대의 공급처 다변화, 리쇼어링, 지역화 (regionalization) 등 기업재편 흐름에서 다국적기업의 투자 방향이 장기적 FDI 방향을 결정

### 3 | 내륙국

- **[2020년 동향]** FDI는 전년 대비 31% 감소하여 2007년 이래 최저수준인 150억불 시현
  - 팬데믹으로 인한 각국의 국경폐쇄 및 이동제한은 지리적으로 취약한 내륙국의 무역거래 여건을 크게 악화
- **[전망]** 2021년 뿐만 아니라 2022년까지도 FDI 감소세 예상
  - 글로벌 공급망 재편시 다국적기업은 역내 자가공급망 (Regional Self-supply Capacity) 구축에 우선 순위를 두어 내륙국에 대한 투자유인이 낮음.

## V. 외국인투자 정책 동향

### 1 | 외국인투자 규제 및 투자촉진 정책 동향

- 2020년 도입 외국인투자 정책은 전년 대비 40% 증가한 152개
  - **[규제정책]**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21개→50개)하여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주로 선진국이 수립·운영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투자규제 확대는 팬데믹 이후 가속화되었으며, 선진국은 FDI 유입 관련 사전 스크리닝을 강화
    - 규제정책은 주로 국가안보 또는 주요 인프라 외국인 소유권 제한, 핵심기술 이전 제한 등 자국 주요산업 보호를 목표
  - **[촉진정책]** 촉진정책의 수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66개→72개)이며, 주로 개도국이 수립·운영
    -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투자활성화를 위한 촉진정책이 두드러짐.

- **[중립정책]** 중립정책의 수는 전년 대비 50% 증가한 30개로 나타남.
- 각국 외국인 투자정책에 대한 2020~2021년 상반기 주요 트렌드는 국가안보 중시, 자국산업 보호, 개도국 투자 촉진임.
- **[국가안보 중시]** 주요 안보 산업에 대하여 자국기업의 피인수·합병시 국가개입 정책 강화(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등)
- **[자국산업 보호]** 외국자본 유입시 자국의 콘텐츠 사용 요구 강화(인도네시아, 앙골라, 나미비아 등)
- **[개도국 투자 촉진]** 개도국을 중심으로 투자정책 투명성 제고, 투자자보호 강화, 투자유인 확대, 국가-투자자간 분쟁해결 수단 마련 등에 역점을 두어 투자 유입을 촉진(중국, 러시아, 멕시코 등)
  - FDI는 여전히 개도국의 주요한 외자 유치수단이며, 감소세 지속시 경제적 타격 우려

## 2 팬데믹 하 의료산업 투자정책 동향

- 팬데믹은 의료산업 공급망의 취약성 및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위험성을 여실히 드러나게 한 바, 투자정책상 변화를 유발
- **[외국자본 스크리닝 강화]** 의료산업 투자 자체를 규제한 국가는 없으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자본의 자국 의료기업 인수에 대한 스크리닝 강화(영국, 오스트리아 등)
- **[첨단 의료산업 인센티브]** 디지털 의료기술, 의료장비 생산, 신약개발 등 첨단 의료산업에 투자시 인센티브 제공(중국, 캐나다, 태국 등)

## VI. 지속가능한 회복과 발전을 위한 투자

### 1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투자 전략

- **[투자 우선순위]** 팬데믹 이후 다국적기업과 정부는 투자시 복원력 (Resilience) 및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우선순위 결정 요소로 고려
  - 지속가능한 투자를 통해 미래의 경제충격 발생시 신속한 복원력 확보를 목표로 함.
  - **[다국적기업]** 3개의 투자전략을 점진적·통합적으로 구사
    - **[생산 네트워크 재구성]** 리쇼어링, 지역화, 다변화 등
    - **[공급망 관리]** 공급망 계획, 유연성 증대, 재고 관리 등
    - **[리스크 관리]** 발생가능한 리스크 경감 조치 등
  - **[정부]** 디지털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생산능력 확대효과가 높은 산업 위주 투자
    - 인프라 구축은 **SDG(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분야, 공공 분야, 경제적 승수효과가 큰 산업을 우선적 고려**
      - \* 2015년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 생산능력 확대에 기여하는 **그린필드·M&A 투자를 우선적 고려**
  - **[민관 PF]** 정부는 팬데믹으로 지연된 민간자본 PF 투자를 유도하여 신속하게 사업 추진

- **[지속가능한 금융]** 팬데믹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다국적기업과 정부의 노력으로 지속가능한 금융(Sustainable Finance) 시장 확대
  - **[현황]** 지속가능한 금융상품(펀드, 채권 등)은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한 3.2조불로 급격히 성장\*
    - \* 유럽의 경우 사회적 채권(근로자 및 자영업자 지원) 발행이 전년 대비 5배 증가
  - **[향후 확대방안]** 현재 SDG 관련 금융상품은 선진국 위주로 취급되고 있는 바, SDG워싱\* 우려 해소 등을 통해 개도국 까지 확대 필요
    - \* SDG Washing: SDG 미충족 상태를 충족 상태로 오판하는 현상
- **[참여자의 역할]** 각 금융시장 참여자는 지속가능한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적극적 역할 수행 필요
  - **[연기금]** 장기 운영자금을 보유한 대규모 투자자(Universal Owners)로서, SDG 기여도가 높은 금융상품 투자 확대
  - **[은행 · 보험회사]** SDG 관련 대출 지원, 리스크 헷지 등
  - **[증권거래소]** ESG·SDG 정보공개 기준을 제정하여 투명성 향상
  - **[UN\*]** 국제적 차원의 ESG 표준 제시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금융시장 생태계 조성
    - \* 2021년 10월 'Global Sustainable Finance Observatory' 발족 예정

---

**확인**

팀장 석진오(6252-3580)  
greenbard@koreaexim.go.kr

**작성**

책임조사역 김상곤(6252-3587)  
sgkim@koreaexim.go.kr  
조사역 이용남(6252-3592)  
yongnamlee@koreaexim.go.kr

---

**참고 1**

**주요 연도 FDI 유출입 관련 통계(십억불, %)**

구 분	1990년	2005-2007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F D I 유 입	205	1,425	1,647	1,437	1,530	999
F D I 유 출	244	1,464	1,605	871	1,220	740
FDI 유입 잔액	2,196	14,607	33,162	32,784	36,377	41,354
FDI 유출 잔액	2,255	15,316	32,851	31,219	34,351	39,247
FDI 유입 수익	82	1,119	2,084	2,375	2,202	1,745
FDI 유입 수익률	5.4	8.8	6.3	6.9	6.2	4.7
FDI 유출 수익	128	1,230	2,101	2,330	2,205	1,802
FDI 유출 수익률	7.6	9.5	6.4	6.8	6.3	4.9

\* 금융위기 이전 3개년 평균

## 참고 2

## 2018~2020년 각국 FDI 유입 추이(백만불)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유입액	순위	유입액	순위	유입액	순위
미	국	223,401	1	261,412	1	156,321	1
중	국	138,305	2	141,225	2	149,342	2
홍	콩	104,246	3	73,714	5	119,229	3
싱가포르		75,969	5	114,162	3	90,562	4
인도		42,156	11	50,558	8	64,062	5
룩셈부르크		△16,757	-	14,792	25	62,145	6
버지니아	섬	34,390	15	39,103	13	39,620	7
독일		62,073	8	54,063	7	35,651	8
아일랜드		△16,096	-	81,104	4	33,424	9
멕시코	코	33,730	16	34,097	14	29,079	10
스웨덴		4,221	48	10,112	32	26,109	11
브라질		59,802	9	65,386	6	24,778	12
이스라엘		21,515	18	19,047	20	24,758	13
캐나다		38,240	12	47,837	10	23,823	14
케이만	섬	20,681	19	28,165	17	23,621	15
호주		68,477	6	39,224	12	20,146	16
아랍에미리트		10,385	30	17,875	22	19,884	17
영국		65,299	7	45,454	11	19,724	18
인도네시아		20,563	20	23,883	19	18,581	19
프랑스		38,185	13	33,965	15	17,932	20
베트남		15,500	22	16,120	24	15,800	21
일본		9,256	31	14,552	26	10,254	22
폴란드		15,996	21	10,853	31	10,080	23
러시아		13,228	23	32,076	16	9,676	24
한국		12,183	25	9,634	34	9,224	25 <sup>주)</sup>
스페인		53,495	10	8,515	38	8,928	26
대만		7,114	36	8,240	39	8,802	27
벨기에		30,821	17	2,886	62	8,437	28
칠레		7,742	33	12,525	29	8,386	29
터키		12,840	24	9,290	35	7,880	30

주) 편의치적국인 버지니아섬, 케이만섬 제외시 2020년 기준 세계 23위 FDI 유입국

### 참고 3

### 2018~2020년 각국 FDI 유출 추이(백만불)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유출액	순위	유출액	순위	유입액	순위
중	국	143,037	2	136,905	3	132,940	1
룩	셈	11,623	21	34,472	12	127,087	2
일	본	143,094	1	226,648	1	115,703	3
홍	콩	82,201	5	53,202	7	102,224	4
미	국	△194,412	-	93,552	4	92,811	5
캐	나	57,417	6	78,898	6	48,655	6
프	랑	105,635	3	38,663	10	44,203	7
버	지	41,587	8	44,154	9	42,280	8
독	일	86,244	4	139,278	2	34,950	9
한	국	38,220	11	35,329	11	32,480	10 <sup>주)</sup>
싱	가	22,035	15	50,578	8	32,375	11
스	웨	17,835	18	15,549	20	31,014	12
스	페	37,734	12	19,671	18	21,422	13
아	랍	15,079	20	21,226	15	18,937	14
스	위	43,491	7	△43,723	-	16,768	15
태	국	15,326	19	8,391	30	16,716	16
대	만	18,058	17	11,787	23	14,268	17
칠	레	1,292	42	9,278	27	11,583	18
인	도	11,447	23	13,144	22	11,560	19
케	이	8,261	28	31,630	13	10,835	20
이	탈	32,818	14	19,787	17	10,357	21
벨	기	39,498	10	1,581	46	10,227	22
호	주	7,800	30	9,266	28	9,172	23
몰	타	△7,442	-	7,110	31	7,228	24
핀	란	11,455	22	4,865	34	6,604	25
멕	시	8,365	27	10,985	25	6,528	26
러	시	35,820	13	22,024	14	6,311	27
이	스	6,087	31	8,598	29	5,860	28
사	우	19,252	16	13,547	21	4,854	29
인	도	8,053	29	3,352	37	4,468	30

주) 편의치적국인 버지니아섬 제외시 2020년 기준 세계 9위 FDI 유출국